

순창군 인구절벽 극복 총력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해피니스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순창군이 임신-출산-양육-교육-일자리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국 최고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군은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국 9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완료할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는 PCN 토탈케어 시스템의 PCN은 임신(Pregnancy), 출산(Childbirth), 양육(Nurture)의 약자로 구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임신-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키우기 좋은 복합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우선 출산을 위해서는 산모센터가 들어선다. 산모요가와 태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진행한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도 이곳에 입주해 민관이 함께 출산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육아를 위한 공간으로는 아이돌발방이 운영된다.

틈새시간 시간제 보육이 진행된다. 키즈카페도 들어서 계획으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부모들은 휴



순창군은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식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 새일센터도 들어서 여성 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상담도 진행하는 복합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문화 지원센터도 들어선다. 3층에는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가상 직업체험공간도 마련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주는 이색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농촌의 특성상 지리적으로 출산과 육아관련 유관시설

이 분산되어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드는데 귀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젊은층과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더위 속 '국화꽃 사랑' 눈에 띄네~

남원농기센터 교육반 열기 11월 만개 시 전시회 예정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국화교육반은 지난 3월 3일 첫교육을 시작한 이후 수요일마다 국화꽃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폭염에도 11월을 국화꽃의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국화꽃은 평화, 지혜, 인고, 청순, 고결의 꽃말을 가진 꽃으로 관상용 뿐 아니라, 식용 약용 등으로 널리 쓰이는 유용한 꽃이다.

최근 국화꽃을 이용한 분재작으로 당해년에 원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매력으로 인해 취미활동과 교육이 인기이다.

남원시 원예활동생활화 연구회(회장 노영숙)는 국화꽃에 대한 사랑으로 분재교육을 시작하여 지난 5년 동안 매해 국화전시회를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광안부에서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해동안 키운 분재 작품을 전시하여 많은 각광을 받았다.

또한 수업에 참여중인 회원들은 화분관리의 첫 수업을 상토만들기로 시작하여 분갈이 하는 법, 삼목하는 법, 물주는 법, 병해충 관리법 등 식물을 관리하는 일반 요령과 분재를 만드는 기본 이론으로 수형 보는 법, 철사로 유인하는 법, 적심하는 법 등을 교육이수할 예정이다.

애초의 목적인 회원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상승시키며, 정서를 함양시키고,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교육 참여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올해도 국화꽃이 만개하면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여기서 회원들이 직접 가꾼 국화분재를 시민들과 내방객 앞에 직접 선보여 솜씨를 뽐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무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는 회원들의 국화꽃 애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하여 좋은 작품 보시기를 기원하며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비만프로젝트 바른자세걷기 성과 돋보여

순창군, 501명 대상 12주간 진행... 평균 체중 5kg감량

순창군이 추진한 비만프로젝트 바른자세걷기가 참여자들의 호응속에 막을 내렸다. 올해 바른자세걷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2주 동안 총 30회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한의사와 함께 비만침 시술 및 한약보조제 처방, 전문 체조강사의 파워로빅을 통한 근력강화 및 유산소 운동이 집중 실시됐다.

개인별 식사일기에 따른 영양상의 체계적인 1:1 개별상담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 등이 병행 추진돼 효과를 더했다. 특히 군민의 건강에 대한 운동 생활화하기, 걷기실천율을 높이고자 바른자세걷기 프로젝트도 연계하

여 체중감량, 체지방량 감소등 평균 체중 5kg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12kg의 체중감량에 성공한 박모씨(구림면)씨는 "체중을 줄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알게 되고 체력이 좋아져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비만 개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더 큰 효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 주민중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체험과 전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만들기 체험·문화 '두각'

임실치즈·두월마을, 행복마을 콘테스트 출전 준비

임실군의 주민중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체험과 전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치즈를 테마로 한 농촌체험마을로 인기를 끌어난 임실치즈마을과 전통농경문화촌 농촌축제를 문화로 이끌어 온 삼계면 두월마을 등이 대표적인 성공마을로 부상하면서 주민공통체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마을은 최근 전라북도가 개최한 제4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핵심이 되는 체험과 소득, 문화와 복지 등 분야에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 마을들은 내달 30일 개최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제4회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가해 전국 내로하라는 마을들과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 예선을 치른 전국의

마을들이 참여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임실한 마을들은 시상금 5백만원과 함께, 각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임실군은 이들 2개 마을 모두 체험과 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대내외적인 명성을 얻은 만큼 전국 콘테스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업정책과 김병진 과장은 "임실치즈마을과 두월마을이 전북을 대표하는 생생마을로 꼽힌 만큼 앞으로 예정된 농식품부 콘테스트에도 참가마을 주민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제4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덕치강변사리마을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춘향어머니 무용단

새만금 판소리무용경연대회 대상

지난 8일부터 2일간 군산시민예술회관에서 펼쳐진 제16회새만금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에서 남원춘향어머니무용단원(김운자, 김연희, 황수정, 김미연, 김계수, 김선임, 김문현)이 무용 신인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립 국악연수원(지도강사 김미연)에서 한국춤을 취미 생활로 시작한 단원들은 양로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다가 주위의 권유로 이번 대회에 나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60대 이상으로 꾸려진 춘향어머니무용단은 전업 주부들이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한국춤을 지도 중인 김미연 선생은 "이번에 출전한 무용단원 모두가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젊은 학생들보다 크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아영장 하수처리시설 점검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북도와 임실군이 아영장 하수처리시설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1일 성수면과 덕치면에 소재한 아영장을 방문해 처리시설 설치·신고사항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 자가측정(연1~2회), 내부 청소이행 등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올바른 하수도 관리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캠페인 증가로 아영장이 증가추세인 만큼 수질오염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정수령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